韓불교, 우크라이나 난민 '트라우마 치유' 나선다

아름다운동행, 명상 공간 임대비 등 지원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
9월 '트라우마 힐링선원' 개원
난민 대상 심리 치료 등 실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에서 출가한 우크라이나 출신 스님이,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트라우마 치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 공간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불법을 알리는 장소로 난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은 지난 8월, 동행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국경 르비브(Liviv)지역에 '트라우마 힐링 선원'을 마련하고 9월부터 운영 중이다.

2013년 화계사에서 출가, 2016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은 원학 스님은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출국,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창고를 담당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얼마 후 우크라이나 경영학교에서 전쟁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 요청이 들어왔고 낮에는 창고 일을, 저녁에는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명상으로 통해 사람들을 돕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우크라이나 국경 르비브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겨 활동 중이다.

처음에는 장소를 찾지 못해 도심 속 공공장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8월 17일, 아름다운동행이 1000만 원(약 7403 유로)을 지원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었고 장비 구매, 인터넷 설치 등 준비 이후 9월부터 이곳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명상, 법요 의식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명상 뿐 아니라 매주 주말 전문 심리치료사와 함께 그룹치료와 테라피 수업도 실시한다. 참여자의 절반은 러시아군에 의해 대거 파괴된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 피난민들로, 이들은 명상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꾸준히 이어온 원학 스님의 활동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트라우마 힐링 선원'에서 수업을 듣고 전장에서 명상을 하는 우크라이나 군인.


아름다운동행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국경 르비브 지역에서 운영 중인 '트라우마 힐링 선원'. 한국에서 출가한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아름다운동행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 원학 스님은 "조계종에서 출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덕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었다"며 "가르침을 준 모든 스님들께 존경을 표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준 한국 불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치유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최근 우크라이나 가톨릭 대학 심리학 프로그램도 신청, 10월부터 트라우마 힐링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원학 스님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국민들이 수시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으로도 빈곤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한국 스님들에게 배운 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전쟁에 의한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국 불교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라며,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지원금 40만 불을 전달한 바 있다. 동행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지진, 홍수, 전쟁 등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후원받고 있다. 홈페이지(www.dreaminus.org) 참조. 02)737-9595

30주년 경찰청불자회, '국민신뢰' 발원

10월 27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사회와 국민안전에 매진해 온 경찰청 불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경찰청 불자회는 10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경찰청 경승실장이자 경찰전법단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경찰청 경승 선업 스님(포교원 포교부장)과 효신 스님 등을 비롯해 김준영 경찰청 불교회장(기획조정관), 모상묘 서울청 불교회장(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가수 김흥국씨도 참석해 특별한 소회를 전했다. 경찰청 불자회가 법당을 처음 마련하던 당시 불자가수회장 소임을 맡았던 김 씨는 불자가수들의 원력을 모아 법당 소종(小鐘) 불사금을 전달한 인연이 있다.

길민성·한진이 부회장이 대표낭독한 발원문에서 경찰청불자회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구현을 위해 암흑과도 같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굳은 의지를 갖도록 광명으로 비춰 이끌어 달라"고 서원했다.


경찰청 불자회는 10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 하루가 고되고 힘겹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와 자비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배워 나가고 있다"며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희망이 꽃피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청 불자회는 1989년 불자직원 모임인 '연꽃모임'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1992년 경찰청 남관 지하에 법당을 개원해 불자직원들의 신행과 원만한 직무를 위한 쉼터역할을 해 왔으며, 2009년 같은 건물 2층으로 위치를 옮겨 현재 '수심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행복바라미, 신라·백제불교 뿌리 찾는다

10월 27일 조계사서 개막식
모연 함께 초전법륜지 조명

거리모금을 통해 자비를 전했던 행복바라미 문화축전이 신라·백제불교 뿌리 찾기로 외연을 넓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10월 27일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무형문화재 이방호 목조각장의 목조각 체험, 정성길 단청장의 단청그리기 체험 등도 진행됐다.

주윤식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중앙신도회장)은 "행복바라미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행복바라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고립됐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화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영호남 불교의 뿌리를 찾는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행복바라미 행사가 다시 시작돼 기쁘다"면서 "올해는 나눔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본래 취지와 더불어 지치고 힘들었을 국민들을 위로하는 문화행사들도 열린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주제로 열리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백제불교와 신라불교 최초도래지를 조명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개막 선포식에서 모금함에 기금을 보시하고 있다.

11월 13일에는 경북 구미 신라불교초전법륜지에서 '2022 신라불교 발상지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개최된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걷기 행사에서는 108인으로 구성된 아도화상 전법순례단이 아도화상 전법의 길을 걸으면서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파한 아도화상의 숨은 포교를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10월 19일에는 전남 영광 법성포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서 '2022 백제불교발상지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복바라미 모금과 전통문화공연이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자비원, 광명 다목적강당 준공

전국비구니회, 10월 26일 준공식
가야면 광명노인요양원 앞 신축
지목 현실화 협의 성과도 눈길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다목적강당을 새롭게 건축해 가동을 시작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0월 26알 광명노인요양원 앞에서 해인사자비원 광명다목적강당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이자 해인사자비원 대표이사 본각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과 수석부회장 현정 스님, 부회장 성본 스님, 사회복지부장 도선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하재국 가야면사무소 면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야면 광명노인요양원 앞에 위치한 다목적강당은 2022년 4월 건립에 착수해 올해 8월 마무리됐다. 애초 해당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지만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던 문제를 바로잡고, 지목 현실화를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면서 이번 불사가 시작됐다. 2021년 7월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농지의 지목변경을 추진했으나 농지법상 한계가 드러나 합천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지로 변경 후 노유자시설로 재탄생했다. 다목적강당은 향후 요양원 입소 어르신과 해인사자비원에 거주하는 비구니스님들,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인사자비원 광명다목적강당 준공식.

본각 스님은 "다목적강당 건립에 마음을 함께해 주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감개무량한 심경을 전했다.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을 인수할 당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명요양원과 해인사자비원에 비구니 스님만 90여분이 계시기에 우리 전국비구니회가 외면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맡게 됐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번듯한 다목적강당이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6일(일) 오전 10시 40분
◈ 장 소 :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
◈ 내 용 : 움직임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불교상담개발원장)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